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1/19~2026/01/25]

2026.01.26

[로봇] 혼조세

- 시작도 전에 벽에 부딪힌 한국 로봇.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반대 성명
- IPO 본격화하는 HD현대로보틱스, 그룹사와 시너지 확대 추진
-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 27년 일반 판매 전망. 유니트리는 25년 5,500대 출하

[방산]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속지 말자

- 노르웨이 천무 수주 가시권. 노르웨이 의회에서 천무 도입 승인
- UG넥스원, 실드 AI와 협력 확대. V-BAT에 L-MDM 유도탄 탑재 추진
- 그린란드 둘러싼 미국·유럽 긴장감 완화. 러·우 휴전 기대감도 고조

[조선] 캐나다 잠수함 막바지 노력

- VLCC 신조선가와 중조선가 격차 축소. 탱커 수주 강세
- LNGC 시장에서 존재감 커지는 중국 조선. 카디프 가스 후동중화에 4+2척 발주
- 캐나다 잠수함 둘러싼 치열한 경쟁. 한국 특사단 이번 주 캐나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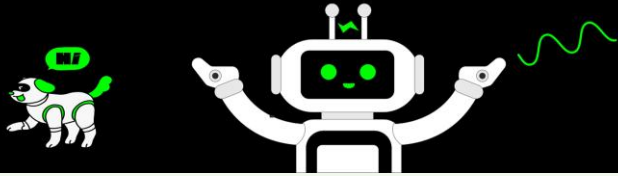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

- 아시아나 T2 이동 후 혼란. 티웨이와 에어프레미아는 T1 내 카운터 이동
- 유나이티드 항공 호실적. 견조한 여객 수요 + 프리미엄 수요 증가 영향
- 비만치료제 열풍 속, 탑승객 체중 감소로 연료비 감소할 것이란 전망

[해운] 아시아발 컨테이너 운임 하락

- 동원그룹 자회사 스타키스트 기업평가 착수. 매각 여부는 미정이며 M&A 검토 중
- 인도발 홍해·수에즈 항로 복귀 가시화. 환적 관문 인프라도 선제 가동
- 현대글로벌비스, 보유 선박 45척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도입 발표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혼조세

CES 이후 질풍가도를 달리던 한국 로봇은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 성명에 주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휴머노이드 상용화 및 양산 관점에서 활기. 이제부터는 테슬라 행보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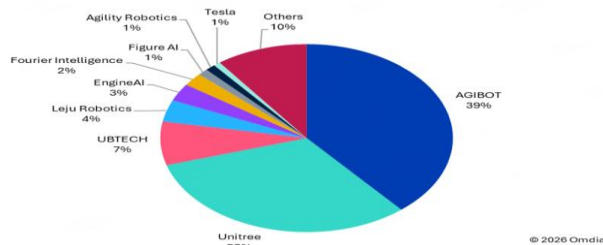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2)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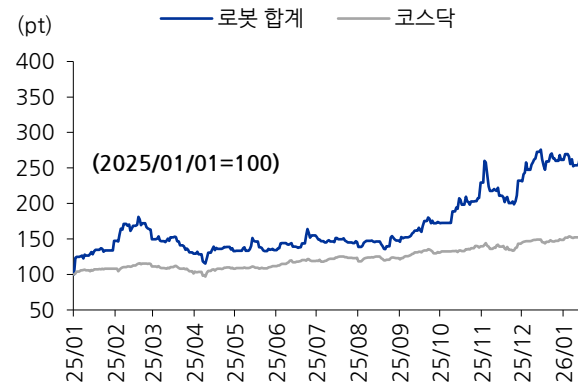
- 한국 로봇은 연초부터 기대감을 키우던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기대감이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 성명에 혼조세. 한국 로봇 기대감은 한 풀 꺾인 모습이나,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여전히 활기.
- 중국은 공업정보화부(MIT)에서 2025년 로봇 산업 성과를 공유. 휴머노이드 기업 140개에 330종의 로봇 제품 출시. "안정적으로 서고, 안정적으로 걷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공장에서 작업"하는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이라 언급.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25년에 6,500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고 5,500대를 출하했다고 발표. 옴디아의 조사 결과(1위 애지봇, 2위 유니트리)에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나, 압도적 성과임은 불변.
- 테슬라도 옵티머스 현황을 업데이트. 현재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 수행 중이나, 올 연말부터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27년말 일반 대중 판매 가능성을 언급. 테슬라는 2~3월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 예정. 한국 시간 29일 오전에 예정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추가 업데이트 기대.

Key Chart: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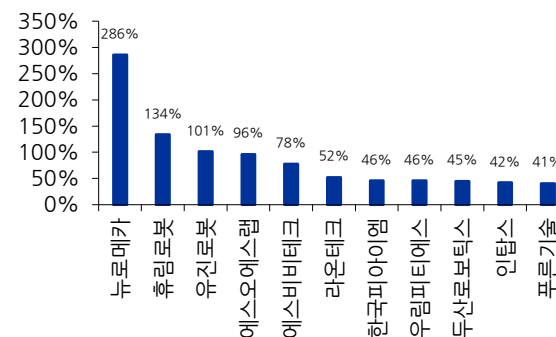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1/19~01/25)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HD현대로보 IPO 두고 조선·건설기계와 시너지 확대
- HD현대, 로봇 '주력'으로 키운다. 계열사 자동화 속도
- 고영 뇌수술로봇, 미국 이어 일본도 인허가 취득
- 로보티즈 '5세대 개미' 공개. 대규모 상용화 국면
- 케이엔알시스템, 중부발전 낙탄화수 로봇 실증 성공
- 뉴빌리티, 배달로봇 1천대까지 확대 운영 목표

[휴머노이드]

-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합의 없이 1대도 안 돼"
- 에이로봇, 7월 5세대 휴머노이드 '앨리스5' 출시
- 보스턴 다이내믹스 美 상장 돌입. 현대차 TF팀 구축

[부품/SW/기타]

- 로보티즈, 신공장 7월 완공. "올해 생산 풀개파 도달"
- 뉴로메카, 제1회차 CB 전량 전환청구 완료
- 무역협회, "한국 로봇 '공급망 취약' 지적"
- 노란봉투법 이후 로봇 도입 자체는 금지 아니냐
- TIGER 휴머노이드로봇 ETF 2종, 순자산 9,000억 돌파

[Global]

- 일론 머스크, 2027년말 휴머노이드 대중 판매
- 구글 딥마인드 CEO "피지컬 AI 돌파구 찾기 직전"
- MS, AI 로봇파운데이션모델 '로-알파' 공개
- 서브로보틱스, 병원 물류 딜리전트로보틱스 인수 예정
- 유니트리, 2025년 휴머노이드 5,500대 출하
- 샤오펑, 휴머노이드 시제품 완성, 올해 양산 준비
- 中 유비테크 "에어버스에 산업용 휴머노이드 판매"



Weekly Keyword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속지 말자

유럽 지정학 리스크 완화, 밸류에이션 부담, 낮은 4Q 실적 기대감에 방산주 횡보 중이나, 단기적인 지정학 리스크 완화는 항상 매수 기회. 중장기 방향성에 접근할 필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0)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속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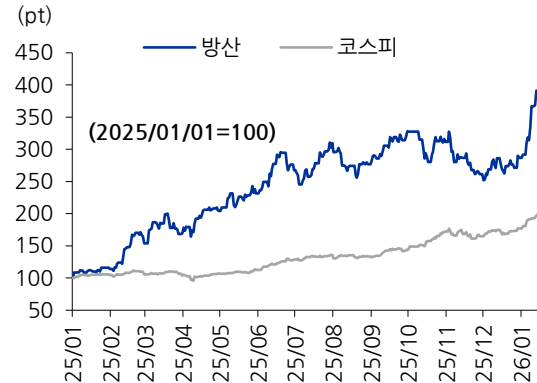
-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긴장감 고조 후 잠정 합의 틀 마련하며 긴장감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도 미국 중재 속 휴전 협상 돌입 (2차 협상은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3차 협상 돌입 예정).
- 지정학 리스크 완화되는 가운데 방산주들 조정. 그동안 급등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커졌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따른 단순 조정은 매수 기회.
- 미국이 지난 주 발표한 NDS에서 작년 말 공개된 NSS와 유사하게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동맹 부담 확대' 기조 확인 가능. 불안한 세상은 지속되고, 자주 국방 기조 아래 중장기 무장 수요 증가 흐름 예상.

Key Chart: 미국 NDS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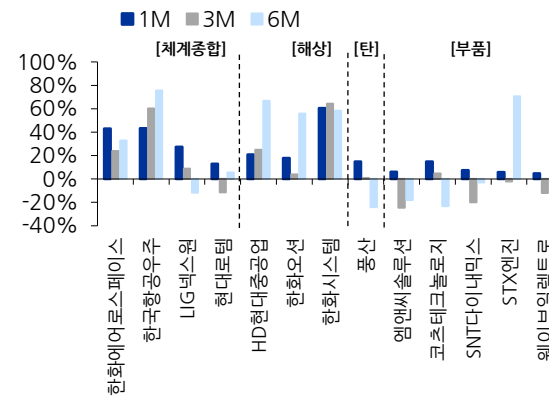
미국 국방전략(NDS) 주요 내용	
안보환경	
미국 본토와 서반구	본토 방어를 소홀히 한 결과 불법 이민자·마약 유입, 핵·재래식 타격·우주 등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증가. 서반구 전역에 적대세력 영향력 확대
중국	대치할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목표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북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미사일 전력은 한국·일본 내 표적 타격 능력 보유
전략적 접근	
미국 본토 방어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본토 방어. 골든돔과 핵전력 현대화 추진. 서반구에서 압도적 군사 우위 회복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제1도련선 중심의 거부 방어 구축
동맹 부담 강화	한국은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 을 질 수 있는 역량 보유. '모범 동맹국'과의 협력 우선시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1/19~01/25)

[수주/계약]

- 노르웨이 의회에서 K239 천무 도입 승인
- 에스토니아, K9-천무 이어 'L-SAM' 도입 검토

[기업별 이슈]

- 美 F-35 전투기 사무국, 한화에어로 사업장 방문
- LG넥스원, 美 실드AI와 '드론 유도탄' 협력
- LG넥스원, UAE 생산 시설 설립 추진
- LG넥스원, 차세대 전자전기 체계개발에 공식 착수
- KAI, 회사채 수요예측서 1.9조 끌어모아
- 법원, KAI '5,000억 분식회계' 과징금 79억 취소
- 현대로템, 수소 사업 전담 조직 신설
- 풍산, 카타르 국영 방산과 인니에 탄약 공장 설립

[기타]

- 이 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 "방산 협력 확대"
- 강훈식 이끄는 방산특사단, 캐나다 찍고 노르웨이 간다
- 공군 블랙이글스, 사우디 방산전시회 첫 참가
- 軍,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5 수백기 확보 추진
-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수주전 초읽기
- 드론사 폐지. 합동작전사우주사 창설
- 조현, 벨기에에서 나토 사무차장 면담. "방산 협력 추진"

[글로벌]

- 미-러-우크라 2차협상 종료 "건설적, 내주 3차 협상"
- 美 NDS, '서반구 이익수호·중역제' 집중. 동맹 역할 강조
-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부과 철회
- 80년 나토동맹 유럽, 미국과 '헤어질 결심' 하나



Weekly Keyword

캐나다 잠수함 막바지 노력

이번 주 한국 특사단이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마감 앞두고 절충교역 논의 전망. 독일도 수주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특사단의 성과가 매우 중요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0)

[캐나다 잠수함 막바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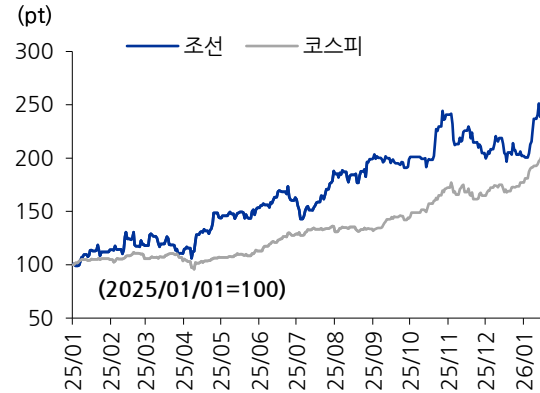
- 이번 주, 한국 특사단이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 강훈식 비서실장을 필두로, HD현대 및 한화오션 최고경영진과 함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캐나다 현지 방문할 예정. 현대차도 동참할 가능성.
-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은 3월 RFP 마감 후 5월 사업자 선정을 예정. 경쟁자인 독일은 이미 캐나다에 히토류, 광업, 인공지능,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등 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주 특사단 방문 이후 구체적인 한국 제안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 한화그룹은 그동안 (1) 밥콕 캐나다와 협력 (2) 뉴펀들랜드/레브라도 LNG 개발 사업 참여 (3)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입찰 (4) 캐나다 육군 패키지 제안 등 총력을 다해왔음. 이제는 官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Key Chart: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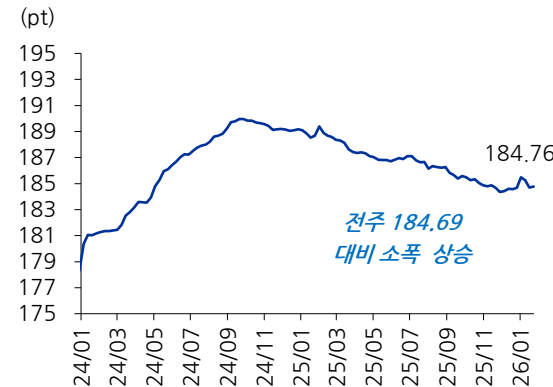
주요 내용
캐나다 에너지 기업 퍼뮤즈 에너지와 MOU 체결 - 캐나다 뉴펀들랜드/레브라도 지역 LNG 개발 사업 참여
캐나다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도전 - 한화솔루션 자회사 큐에너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여
영국 방산 밥콕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파트너십 - 캐나다 현지 MRO 및 교육, 훈련 지원
캐나다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 사장 영입 - 캐나다 해군, 록히드마틴 출신 국방 전문가 통해 현지 대응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1/19~01/25)

[상선/해양]

- HD한국조선해양, 그리스 Varfias로부터 탱커 4척 수주
- 현대상호, 그리스 JHI 스팀십으로부터 탱커 2척 수주
- 한화오션 LNGC 2척 수주. 선가는 250.5M USD
- HD현대마린엔진, 中조선소에 364억 선박엔진 공급

[특수선]

- 한화, 캐나다 LNG 수출 PJ 참여. CPSP 사업 연계
- 한화, 캐나다 현지 사령탑 록히드마틴 출신 영입
- K-조선소 찾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관
- 60조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대한항공' 동참
- HJ중공업,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

[기타]

- 한화오션, 베트남 노스코 조선소와 선박 건조 협력
- 법원,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3천억 원 지급하라"
- HD현대, 팔란티어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체결
- 국산 LNG 화물창 실증 위해 초대형 선박 만든다

[글로벌]

- VLCC,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격차 크게 축소
- '컨'선 스팟운임 급락에 장기계약 협상 '직격탄'
- 카디프 가스, 차기 LNGC 후동중화에 6척 발주
- 美 해군참모총장, 오스탈 사업장 둘러보며 '엄지척'
- 獨 TKMS "캐나다에 배터리·AI까지 투자"
- 그린란드 사태, 캐나다 잠수함 TKMS에 기회
- 中 Wison, 치동조선 가동하며 FLNG 건조능력 확대
- 中 산둥해운, LNG 운반선 4척 발주 추진



Weekly Keyword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강조된 부분은 바로 '프리미엄 수요'. 과거와 달리 LCC와 단순 저가 경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음. 프리미엄 수요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중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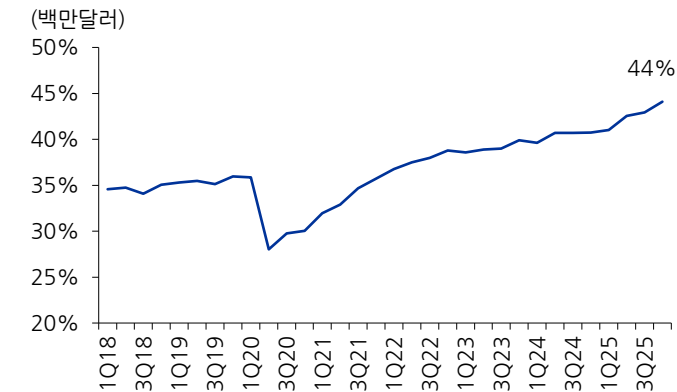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0)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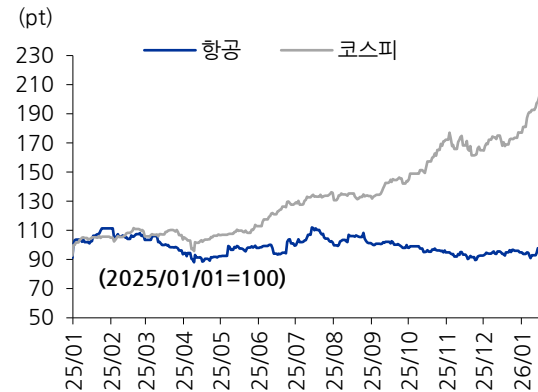
-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실적을 발표. 작년 말 미국 정부 섣다른 여파에도 불구하고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매출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 중. 국내선 메인캐빈은 국내선 공급 과잉 속 전년대비 매출 역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프리미엄석은 4Q25 기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모두 +9%yoy를 기록. 양사 모두 기단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 및 프리미엄 경쟁력 확보 노력 중.
- 과거 LCC와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브랜드 충성도와 수익성 중심'으로 항공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 한국 항공업계도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차별화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

Key Chart: 델타항공 여객 매출 중 프리미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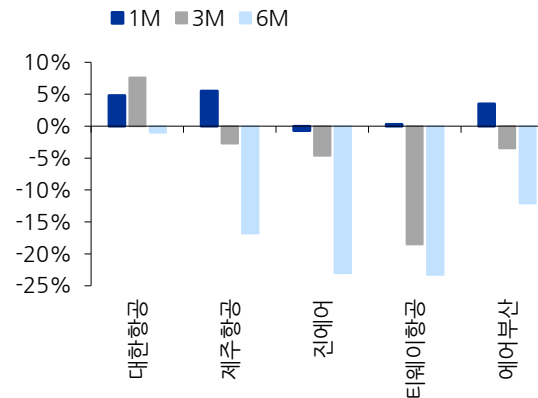


자료: 델타항공,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1/19~01/25)

[여객/화물]

- 자카르타 운수권 놓친 LCC, 중국 노선 확보 위해 집중
- 에어서울, 지난해 연말 국내선 운항 '0건'. 취항 후 첫 사례
- 에어로케이, 청주~마츠모토 부정기 노선 취항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공정위 상대 '65억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
- 대한항공 그룹 항공사,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3수 만에 공정위 문턱 넘나
- 대한항공,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기여 방안' 검토 중
- 아시아나 이전 후폭풍. 인천 T2 예견된 주차대란
- 티웨이-에어프레미아. 인천 T1 내 체크인 카운터 이전
- 티웨이, 4월 미국 시대 개막. 대명소노 통합 사무실 입주
- 에어프레미아, 작년 여객순화물 수송량 40% 이상 성장
- 하이 에어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올해 운항 재개

[기타]

- 비만치료제 열풍에 항공사 연료비 절감 전망

[글로벌]

- 美 유나이티드 실적 고공행진. 프리미엄 매출 급증
- '여행자 자제령'에 12월 일본 방문 중국인 45% 감소
- ANA, 26년 하계 아시아/북미 운항 증편



Weekly Keyword

아시아발 컨테이너 운임 하락

2026년 들어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 지속. 춘절 물동량 감소에 대응한 공선 운항 증가. 유럽향 노선 운임 하락 속 CMA CGM은 희망봉 항로로의 철수를 발표하며 선사간 상반된 전략 채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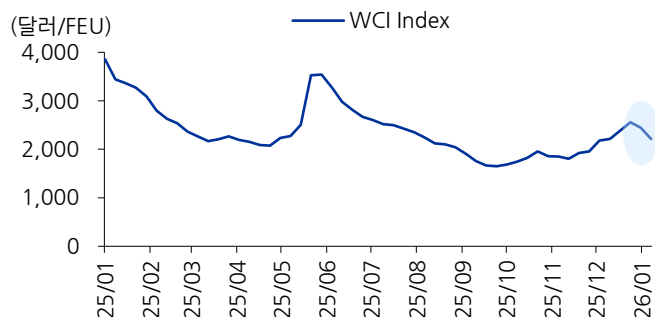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

[아시아발 컨테이너 운임 하락]

- 1/23 SCFI는 1458pt(-7.4%wow)를 기록. 동기간 Drewry가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 지수(WCI) 또한 2,212달러/FEU로 전주대비 -9.5% 하락.
- 연말에 상승한 운임은 1월 중순 이후 조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홍해 사태에 따른 우회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흡수된 가운데 대규모 신조선 인도가 겹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
- 미국로 노선은 중국 춘절 연휴 물동량 증가세가 마무리되며 수요 감소에 대비해 공선운항 증가. 향후 운임 추가 하락 가능성 존재.
- 유럽로 노선 운임 하락세 속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전략은 상반된 모습. CMA CGM은 아시아유럽 노선 3개를 수에즈 운하에서 희망봉 항로로 철수했으며, Maersk는 1/26부터 인도에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USEC 정기 운항을 재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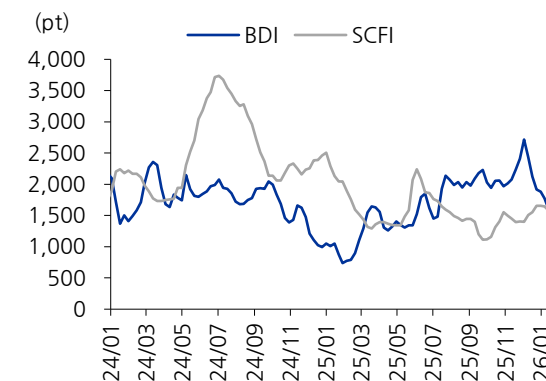
Key Chart: Drewry 세계 컨테이너 지수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1/19~01/25)

[벌크선]

- DNV, 기니 보크사이트 대형 벌크선 수요증가 견인 전망
- 기니 시만두 광산 채굴 첫 철광석 중국 도착
- 4Q25 수에즈운하 통과한 벌크선 운항 회수 증가

[탱커/가스선]

- FEU-英, 원유가격 상한선 44.1달러/배럴로 인하
- 그리스 해운 큰손 다나오스, 알래스카 LNG 투자 합류
- 발틱거래소, BTM(발틱 중형 유조선 지수) 출시

[컨테이너선]

- CMA CGM, 아시아유럽노선 수에즈 경유 철수 결정
- MSC, 부산항 기점으로 아시아-지중해 항로 개설
- Alphaliner, 26년 컨테이너 유회선 비율 1% 미만 유지 전망
- 25년 한중항로 컨테이너 화물,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쳐
- 오션 얼라이언스, 2026년 신체제 총 42개 루프 투입
- 컨선 해체 20년래 최저, MSC 주도 중고선 거래는 활발

[기타]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매각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현대글로벌비스, 보유선박 45척에 스타링크 도입 발표
- 아비커스, HMM 선박 40척에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계약
- 그리스 Navarino, 네덜란드 Castor Marine 인수 발표
- 美, 후티 반군 장악 항만 기항선박 선장 제재 발표
- 흑해수역 선박 전쟁 위험 보험비용 급격히 상승